


- 전투방식과 생활풍습을 통하여 본 고구려의 조선적성격
(Korean Features in Koguryo's Combat Strategies and Customs)
* 조희승 (북한사회과학원)
Cho, Hee Seung (North Korea Academy of Social Science)

- 삼국시기의 주민구성에 대하여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of Korea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 강세권 (북한사회과학원)
Kang, Seo Kwon (North Korea Academy of Social Science)

- 대령강장성을 통해 본 고구려의 방어선
(Koguryo's Line of Defense at the "Long Wall of Daeryeong River")
* 최승택 (북한사회과학원)
Choi, Seung Taek (North Korea Academy of Social Science)

- 한 낙랑군의 위치문제에 대하여
(Location of the Nangnang Commandery of Han China)
* 김유철 (김일성 종합대학)
Kim, Yu Chol (Kim Il Sung University)



전투방식과 생활풍습을 통하여 본 고구려의 조선적성격

조희승 (Cho, Hee Seung, 북한사회과학원)

고구려가 조선중세의 대표적인 국가였다는 것은 고구려사람들의 전투방식과 생활풍습을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전투방식은 민족을 특징짓는 문화적공통성의 하나이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전투방식이 서로 다르다. 전투방식 하나에도 해당 민족의 특질이 나타나기마련이다. 고구려는 조선의 독특한 전투방식대로 싸워 부단히 침습하는 외래침략자들을 격퇴하였다. 조선은 예로부터 산에 튼튼히 의거하여 대적을 격퇴하였다. 고구려이래로 조선사람들은 산이 많은 지형지물에 맞게 성을 구축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성은 산성이라고 불렀다. 동방에서 산성을 쌓고 싸운 것은 유독 우리 조선뿐이다. 일본에도 산성이 있는데 그석은 조선의 영향하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산성을 방불케 하였다. 그것은 <조선식산성>이라고 일본학자들이 명명한것처럼 조선 사람들이 쌓은 산성이다. 일본의 산성은 일본열도에 진출정착한 조선이주민집단들이 고국의 싸움방식대로 쌓은것이였다.¹⁾

이후 일본의 성새는 10세기 중엽까지 산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한곳에 발붙이고 살면서 방어 및 공격용시설로서의 산성을 쌓고 싸운 민족은 오로지 고대조선사람들 그리고 그 후예들인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사람들이였고 그 전통이

1) <일본에서 조선소국의 형성과 발전> 1990년 백과사전 출판사, 1990년 94~114페이지

발해와 고려 및 리조에 이어져왔다. 특히 고구려사람들의 축성법은 우리 나라 산성구축을 대표하는 본보기였다.

고구려산성은 규모가 웅대하고 실용적가치가 있게 축성되었다.

고구려사람들은 몇배, 몇십배의 대적을 맞반양칠수 있고 장기전에 대처할 수 있게 산성안에 병영과 샘 및 우물을 확보하였으며 시내물(계곡)을 에워싼 고로봉식(포곡식)의 웅대한 산성을 구축하였다. 산성은 외면쌓기와 곳에 따라 광면쌓기를 하였으며 큰 돌을 밑바닥에 깔고 거기에 길죽하게 다듬은 돌을 맞물리듯 력학적으로 잘 쌓았으며 고임돌과 버팀돌을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공고하게 구축하였다.

또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개소에는 다듬은 큰 돌을 올려쌓았다.

산성과 산성은 서로 봉수로 신호하면서 적들을 포위공격할 수 있게 방어(위)체계를 세워놓았다. 바로 이러하였기 때문에 중국 수, 당의 침략자들도<동이(고구려)가 성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함락시키기가 조련치않다.>고 하면서 매우 두려워하였던것이다.2) 이 말은 전 의주자사 정천숙이 수 양제를 따라 고구려침략에 나섰다가 수나라 300만 대군이 몰살당하는 것을 직접 보고 훗날 당 태종에게 공포에 싸여 말한것이다.

이 자료를 보아도 수, 당나라때 중국사람들이 고구려를 동이(동쪽오랑캐 즉 고구려)라고 멸시하여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구려의 산성구축은 조선에만 독특한것이였다.

유목민족인 몽골과 만족(녀진족)은 정착생활을 하지 않은데로부터 산성을 쌓지 않았다. 한족 역시 황하류역의 황토층의 평야지대에서 기원하였기때문에 산성같은 것은 쌓지 않았다. 성새인 경우에도 평야와 평지에 방형모양으로 토성을 구축한 도성을 쌓는 것이 고작이였다. 유독 조선사람들만이 험준한 산에 의거하여 성벽을 쌓고 외적을 격퇴하였다. 이로부터 조선식의 전투방식과 전략전술이 창조되게 되었으며 그것은 하나의 민족적특징을 창조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산성구축은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에 공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고구려가 제일 대표적이였다. 고구려의 우수한 산성축성법이 남쪽나라들에 크게 보급되었다는 것은 고로봉식 산성의 남쪽에로의 파급과 남쪽나라들에서의 산정식으로부터 고로봉식의 교체 하나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고구려식산성의 우수성은 오히려 한족들의 성새에 큰 영향을 줄 정도였다. 실례로 후세의 만리성에 <치>가 있는 것은 고구려와의 침략전쟁에서 배운 지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아지고있다.

2) <삼국사기>권21, 고구려본기 보장왕3년

그리고 중국 남조선의 건강성(남경성)도 고구려의 양향을 받아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강하다. [<백제사연구> 주체91(2002)년, 208~209 페이지]

산성축성에서 반드시 언급하여야 할 것은 재료에 관한 문제이다.

고구려를 위시로 한 삼국시기는 물론 발해와 후기신라, 고려, 리조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산성축성의 기본재료는 돌이었다.

산에서 화강암을 비롯한 돌을 캐내어 그 돌을 재치있게 맞물리며 억척같은 성세를 완성하는것, 이것이 조선의 성채축성법의 전통이었다.

이와 같은 석축은 조선의 고유하고도 전통적인 기법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사람은 돌재료를 성새구축에만 쓴 것이 아니라 무덤칸축조에도 썼다.

조선은 고대와 중세시기에 여러 가지 무덤칸을 쌓았으나 그 기본재료는 돌이었다. 일부 고대시기에 남쪽지역에서 돌무덤(옹관)을 쓰기도 하였고 또 나무곽무덤을 쓰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돌무덤이 압도적자리를 차지하였다. 간혹 평양일대와 공주지방에 벽돌무덤이 있을뿐이다. 고인돌무덤으로부터 시작하여 고구려의 돌각담무덤, 돌곽무덤, 돌돌림무덤, 돌칸흙무덤 등 돌을 기본재료로 쓰면서 여러가지 돌무덤을 만드는 것이 조선의 기본묘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의 기본묘제에 쓰인 재료가 돌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반면에 한족들의 무덤칸에 쓰인 기본재료는 다같이 벽돌이었다. 황하류역 중원의 특수한 황토층의 진흙을 빚어 구워 만든 벽돌로 집을 짓고 성새(도성)도 구축하며 무덤칸을 만드는것—이것이 한족의 기본생활방식이었다. 온돌을 쓰지 않고 벽돌집을 짓고 살면서 무덤칸도 벽돌로 구축하는 것 그리고 성새도 벽돌을 올려쌓으면서 완성하는 것, 이것이 한족들의 보편적생활습성이었다. 후세대 와서까지 한족들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에서 벽돌건축이 보급되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어 만리장성처럼 산세에 따라 구축하는 산성조차도 주로 벽돌로 쌓았다.

조선에서처럼 바위를 파내거나 바위우에 돌을 올려쌓지 않았다. 만약 고구려의 조상이 일부론자들이 말하는것처럼 염제의 한갈래이거나 전욱 고양씨 또는 상, 은의 후손들이었다면 고구려의 생활풍습이나 무덤칸에 벽돌사용습성이 남아있어야 할 것이다. <통구>라고 부르는 고구려의 정치적중심지 집안에는 장군무덤을 비롯하여 1만여기에 달하는 방대한 고구려무덤떼가 있다.

거기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돌무덤이 한 벌 쪽 깔려 있다.

또한 압록강과 장자강일대의 고구려무덤 역시 돌각담무덤이 기본주류를 이루고있다. 이러한 고구려돌무덤에서는 벽돌무덤의 흔적조차 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고구려가 한족의 한갈래로서 료동일대에 건너와서 고구려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 췌변이 얼마나 허황한가 하는 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생활풍습 또한 문화적공통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들중의 하나이다.

다방면에 걸친 삼국시기 사람들의 생활풍습가운데서 온돌은 그중 대표적인 생활풍습의 하나이다.

온돌을 놓는 풍습은 조선민족이 수천년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창조한 난방과 취사보장풍습이었다.³⁾ 벌써 고조선과 진국 등 고대국가시대의 조선주민들이 온돌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문헌과 고고학적자료들에 의해 입증되어있다.

온돌은 난방용 및 취사용을 겸한 조선의 고유한 살림시설로서 북으로는 고조선과 고구려, 남으로는 변진과 백제, 가야, 신라 그리고 발해와 고려, 리조에 이어졌으며 오늘날에도 온돌은 면면히 계승되고있다. 중국의 역사책<삼국지>(위지동이 변진조)에는 고대진국을 구성한 변진에 집의 서쪽에 가마터가 있다고 밝히었으며 이와같은 문헌의 전승은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유적(3세기경)과 그 밖의 고고학적자료들에 의해 확인된다.⁴⁾

고구려에서도 온돌을 사용하였다. 고구려의 첫 수도성이었던 졸본(홀본)—오녀산성의 발굴(1996년 이후 3년간)결과 병영자리에서 구들—온돌이 드러났다.

요컨대 고구려초기의 구들자리가 드러난것이다. 안악3호무덤의 벽화에도 가마를 거는 장면이 있는데 고구려사람들이 가마를 취사용만이 아닌 난방용으로도 사용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온돌은 조선민족의 고유한 난방시설이며 조선민족을 특징짓는 생활풍습의 하나이다. 조선사람은 어디에 가거나 방바닥에 구들을 놓고 살았다. 가야와 백제사람들이 당시 왜 땅이라고 하던 일본렬도에 건너가서도 고국의 생활풍습대로 온돌을 놓고 살았다는 것은 고고학적자료가 증명해주며 그에 대하여서는 구태여 레증을 들지 않아도 될것이다. 일본사람은 물론이고 만족도 한족도 온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만족이나 한족이 쓰는 난방시설인 <강>(炕)은 온돌과 다르다.

이것은 또한 고구려족이 한족의 한갈래였다는 주장을 반박해주는 자료로도 된다.

3) <조선의 민족전통> 백과사전출판사, 1994년 3권, 89페이지

4) <가야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년 201페이지

오녀산성의 고구려병영바닥에 설치된 온돌이나 가야가 있던 김해의 부원동유적의 온돌이나 다같이 조선민족에게 고유한 난방시설로서 한족국가나 한족풍습과 전혀 같지 않은 생활풍습의 하나였다.

발방아 역시 조선의 민족적생활풍습의 하나였다.

고구려의 안악3호무덤벽화에는 고구려녀인(궁녀)이 발방아를 찰는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놓았다. 그리고 그우에는 빨간 글씨로 <학>(방아)이라고 적어놓았다.

방아는 아시아뿐만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쓰는 탈곡 및 가루분쇄용도구이다.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방아질을 하는가에 따라 매개 민족의 특색, 특징이 나타난다. 바로 발방아는 조선민족에게 고유한것으로서 허리와 다리가 강한 조선사람의 체질적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허리와 다리가 약한 한족과 농사를 잘 짓지 않았던 만족(녀진족)은 발방아를 쓰지 않았다.

발방아질은 곡식조리에서 없어서는 안될 조리방법이었다.

그러면 고구려사람들이 무슨 곡식을 어떻게 조리하였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여기에도 조선민족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잘 알려져있는것처럼 조선사람들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걸쳐 쌀밥을 포함하여 5곡을 먹었다.5) 대동강류역인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6), 표대유적 등지에서 벼알을 비롯한 조, 콩, 기장 등의 5곡이 드러났다.7) 이와 같은 5곡을 주식으로 한 식생활풍습, 음식문화는 고대시기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시기와 그 후의 발해, 신라 그리고 고려와 리조에 이어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따라서 고구려 안악3호무덤벽화에 그려진 발방아에서 찰는 알곡 역시 벼알이나 기장쌀 등의 5곡이 분명하다. 이와 반면에 황하류역의 중국 중원에 근원을 두고있는 한족의 식생활풍습은 주로 밀과 밀가루음식이었으며 거기에 기름기를 보충하기 위한 돼지고기음식이 배합되었다. 따라서 고구려와 한족의 방아형식도 다를뿐만아니라 방아에서 찰는 알곡종류도 달랐던것이다. 중국은 연자 방아에 밀조리가 기본이었다. 이것은 나아가서 고구려의 연원문제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준다. 즉 고구려가 중국고대의 염제의 후손이니 뭐니 하는 것이 음식문화 하

5) <조선의 민속전통>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4년, 1권 40페이지

6)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년, 22페이지

7) <지탑리원시유적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1961년판 52페이지

나만 보아도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백제사람들 역시 5곡을 위주로 한 음식문화를 꽃피웠지 중국 사람들처럼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거나 밀가루음식을 위주로 먹지 않았다. 일부론자들이 말하는것처럼 고구려가 중원에 있던 한족의 한갈래가 건너와서 생긴 나라이고 또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백제가 한족의 갈래였다면 고구려는 물론 남쪽나라에 할거하였던 백제도 한족처럼 밀가루음식을 위주로 한 식생활풍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음식 하나를 통해서도 고구려사람들의 민족적풍습을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는것이다.

전반적으로 문화유물을 포함하여 문화양상, 문화종태자체가 한족의 역대 국가들과 고구려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문화와 관련하여 곁해 말한다면 중원의 역대 국가 들은 고구려를 이단시, 이방시하여 침략하는 경우 철저한 파괴와 약탈을 일삼았다. 모용황이 고구려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친 다음 파괴와 약탈을 감행한것이나 668년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평양성이 쑥대밭이 되도록 미증유의 대대적인 방화와 약탈을 감행한 것은 그러한 실례들이다. 지금도 모든 고구려무덤들에 유물 한조각 성하게 남지 않은 것은 그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약탈에 기인한다. 그것은 그들이 고구려를 <동이>로 멸시한데로부터 오는 침략이며 약탈이었다. 만약 한족과 고구려족이 동족이었다면 그러한 파괴와 약탈을 일삼을 수가 없었을 것이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오늘에 와서 량자는 동족이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하나의 궤변이다.



삼국시기의 주민구성에 대하여

강 세 권 (Kang, Seo Kwoon, 북한사회과학원)

단군조선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 조선민족의 원류는 반만년을 헤아리는 장구한 기간을 흘러오면서 그어떤 혼혈이나 동화를 모르고 자기의 정통을 꺾듯이 이어왔다.

조선민족은 그 기나긴 나날 역사적 및 지정학적요인으로 하여 각이한 국가와 지역들에 갈라져 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결코 단일한 민족으로서의 조선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조건으로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지난날 일제어용사가들은 조선민족의 단일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조선사람의 조상은 신라—삼한 사람들이고 부여—고구려—발해사람들은 통구스족—만주족으로서 조선민족이 아니었던것처럼 역사적사실을 난폭하게 왜곡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에 와서도 불순한 목적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되풀이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삼국시기의 주민구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원류, 단일성은 삼국시기에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한다.

다 알다싶이 삼국시기라고 하면 조선력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중세초기를 말한다. 물론 이 시기에는 후부여나 가야도 존재했지만 이 나라들이 후에 고구려나 신라에 통합된 조건에서 구태여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삼국시기의 주민구성문제를 논한다고 하면 크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주민구성을 고찰하면 될것이다.

삼국시기라는 시기명칭이 보여주듯이 이 식기의 주민구성을 보면 대체로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으로 나눌수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지난 시기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는 B.C. 3세기 초엽에 건국한 이래 주변지역에 대한 통합사업에 주력하여 초시기에 벌써 많은 령역을 차지한 대국으로 자라났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전신인 구려사람들외에도 고조선, 부여, 옥저, 예 등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고구려주민으로 편입되었다.

《후한서》, 《삼국지》를 비롯하여 옛 문헌기록들에서 (고)조선, 부여, 옥저, 예 등으로 구분된 지역의 주민들은 본래 조선옛류형사람들의 후손으로서 전조선(단군조선)시기에 그 령역안에서 살면서 이미 하나의 민족을 이룬 사람들이었다.

그후 부여, 구려, 진국과 같은 나라들이 전조선에서 떨어져나가면서 서로 다른 고대국가안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 주민들은 의연 하나의 민족—조선민족의 구성부분이 였다.

지난 시기에는 고구려를 세우는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5부5족을 비롯하여 고구려의 기본주민들을 《맥족》으로만 보거나 《예족》과 《맥족》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옛 기록들에 나타나는 《예》와 《맥》, 《예맥》 관계 자료들은 고구려사람들을 비롯하여 앞선 시기의 고조선, 부여사람들을 《맥족》이나 《예족》으로 갈라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삼국지》나 《후한서》에서 고구려의 동쪽에 옥저가 있고 남쪽에 예, 맥이 있다고 한것이라든가 강원도 령동지방에서 《예왕》의 도장이 나왔다고 한 《삼국사기》의 기록 등이 그 실례로 된다.

여러 기록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고구려와 부여, 동옥저, 예는 서로 언어와법, 풍속이 같은 사람들이 였다. 언어와 문화, 풍습이 같은 사람들이 한족속이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그들사이에 구별되는 점이 있었다면 거주지역의 차이로부터 오는 약간의 지방적차이가 있었다는것뿐이다.

따라서 고구려사람들이 《맥족》이니 《예맥족》이니라고 한 일부 기록들에 근거하여 그들의 족속계통을 고조선이나 부여 등과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것이다.

원래 《예》라든가 《맥》 그리고 《이》, 《이맥》 등은 고대중국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 종족들을 업수이보면서 많은 경우 나쁜 뜻을 가진 글자로 이름을 지어 놓은데 불과하다. 또 《맥》의 음은 《박》이며 그것은 고조선, 고조선사람들을 《발조선》, 《발인》이라고 쓴기록과 단군을 뜻하는 《박달》과도 서로 통한다.

고구려사람들은 자신들을 《예》, 《예맥》 또는 《동이》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광개토태왕릉비문에서 중부조선이남지역 사람들을 《한예》로 부르고 중원고구려비에서

신라사람들을 《동이》라고 하였으며 《삼국사기》에서도 《예맥》, 《예》를 고구려사람들과는 구분하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주민구성에서는 후에 들어온 말갈족, 거란족 등 변방의 이족들을 제외하고 부여지역 이남, 고조선지역 이동의 주민들은 다 같은 조선민족의 구성원들이었다.

한편 조선반도중남부지역에 위치하였던 백제나 신라도 마찬가지였다.

백제와 신라의 발상지가 본래 마한, 진한, 변한으로 구성된 고대진국지역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로 그런 것으로 하여 백제와 신라의 주민은 흔히 《한》, 《삼한》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있다.

그런데 이 삼한사람들도 고구려를 가리키던 《예》나 《맥》과 같은 한겨레였다.

《한서》(권1 고제기 상)의 기록에 대한 당나라 사람 안사고의 주석에 의하면 《삼한의 족속들은 모두 맥 계렬》이라고 하여 《삼한》과 《맥》을 같은 족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사실을 옳게 반영한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마한, 진한, 변한 등 삼한지역은 전조선에서 갈라져나온 고대진국의 영역으로서 그 주민인 《한》도 고대조선족의 한갈래였다.

고구려시조 동명왕의 아들인 온조가 많은 주민집단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 마한지역에 정착하여 백제소국을 세웠다거나 고조선유민들이 경주지방에 가서 6개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사로국을 세운 사실, 진한 사람들이 락랑사람들을 가리켜 저들의 《잔여인》으로 간주했다는 기록들은 중부조선이남지역의 사람들도 고구려사람들과 같은 갈래의 주민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이들 세나라의 주민들이 같은 갈래의 주민들이었다는 것은 많은 문헌 및 고고학적자료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언어, 문화적공통성을 가지고도 말할 수 있다.

결국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기의 주민들을 그들이 속한 나라나 그들이 거주한 영역에 따라 편의상 구분하여 부르는 지역별 호칭일 따름이지 결코 그들사이를 민족적으로 갈라놓은 명칭은 아니었다.

비근한 실례로 현재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많은데 그 거주지역이 다르다고 하여 그들을 조선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것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사람들이 다 같은 조선민족이다는데 대하여서는 고려시기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와 같은 역사책들에 의하여 여실히 증명된다.

책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고려사람들 속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의 나라들이라는 관념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제반 사실은 삼국시기의 주민들을 《고구려족》이니 《신라족》이니 하고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신라족》만이 조선민족의 조상이고 고구려는 타민족의 나라라고 떠벌이는 일제어용사가들의 주장이 한갓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인류학적연구성과에 의하더라도 조선민족은 그에 선행한 조선옛유형사람때부터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람들의 집단이었다. 그리고 단군조선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하나의 고대국가안에서 더 긴밀한 연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으며 삼국시기에 이르러서도 혈연적단일성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더욱 공고히 해나갔다.

끝으로 고구려멸망후 그 주민에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려고 한다.

일부 론자들은 고구려멸망이후 고구려사람들이 당나라로 끌려간 것을 근거로 삼아 고구려사람이라는 것이 역사에서 영영 사라진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외면한 극단한 편견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멸망을 전후하여 수십만에 달하는 고구려사람들이 당나라로 끌려갔다. 물론 이것은 적은 수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구려의 인구수와 대비해볼 때 이 수자는 그리 많은것도 아니다.

신, 구 《당서》 등의 기록들에서는 멸망시 고구려의 인구가 69만 7,000호라고 하였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666년에 고구려의 대신 연정토가 신라에 투항하면서 데리고 간 사람들이 763호 3,543명으로 되어있다. 고구려말기 1호는 대체로 5명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멸망당시 고구려의 인구는 초보적으로 계산해도 300만~400만에 달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구려의 인구가 700만~800만에 달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아무튼 고구려의 인구는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론리대로 멸망당시 고구려의 인구가 70만명밖에 되지 않았다면 중세동아시아땅을 뒤흔들어놓은 수십, 수백만에 달하는 침략세력과의 대격전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주장이 역사적사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한것임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그 많은 고구려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겠는가.

역사적사실이 보여주듯이 그들은 의연 고국인 고구려땅에 남아서 반침략고국회복투쟁

을 과감히 전개하여 마침내 침략자들을 고국땅에서 내쫓았으며 고구려의 계승국인 발해를 세운 다음에는 그 주민으로 되었고 그 후손들은 고려의 건국과 함께 고려의 주민구성에 포섭되었다.

이것은 고려가 신라만이 아닌 조선민족전체, 다시 말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를 포괄하는 삼국시기의 주민모두를 자기의 조상으로 망라하는 명실공히 조선력사상의 첫 통일 국가였음을 실증해준다.

이처럼 고구려는 비록 존재를 마쳤지만 고구려사람들은 조선민족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 혈통을 곳곳이 이어왔다.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조선민족의 역사를 외곡하고 왜소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령강장성을 통해 본 고구려의 방어선

최 승 택 (Choi, Seung Taek, 북한사회과학원)

슬기롭고 용감한 고구려인민들은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성곽을 쌓았다.

그가운데는 대령강계선에 쌓은 군사방어선-대령강장성도 있다.

지금까지 대령강장성에 대하여서는 력사기록에 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하여 유적의 성격이 명백히 밝혀지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대령강장성이 압록강을 건너 서북방면에서 쳐들어오는 외래침략자들을 막기 위한 고구려의 방어시설로서 다른 나라 학자들이 주장하는 중국만리장성의 동단과는 전혀 인연이 없다는데 대하여 최근에 진행된 고고학적조사와 발굴성과들을 통하여 밝혀려고 한다.

장성은 일반적으로 국경선이나 군사전략상 중요한 계선에 일선형으로 길게 쌓은 성을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알려진 대표적인 장성으로서는 고구려가 서북국경선인 룡하계선에 쌓은 천리장성과 고려가 북부국경지대에 쌓았던 장성을 들수 있다.

대령강장성은 평안북도의 중부를 흐르는 큰 강인 대령강(174.8km)일대의 군사전략상 중요한 계선에 총길이 238km로 쌓은 성방어시설이다.

대령강장성은 대령강계선의 기본장성과 함께 박천군 삼봉리에서 정주시 신봉리까지 뻗어나간 가지장성(삼봉-신봉장성)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장성에 잇닿은 보조가지성들인 차단성들이 있다.

이밖에 장성방어선과 그 가까이에선 수많은 진성들과 보성들이 배치되어 하나의 장성

방위체계를 형성하고있다.

대령강계선의 기본장성은 대령강하구인 단산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쪽으로 청산리, 박천읍, 중남리, 원남리, 녕변군 관하리, 고성리, 태천군 룡흥리, 학당리, 덕화리, 풍림리, 양지리(구룡전리), 동창군 학봉리, 학송리, 봉룡리, 학성리, 신안리(구화풍리 성흥동)에 이르는 대령강과 그 지류인 창성강, 성흥천 동쪽기슭을 따라 약370리(148km)구간에 뻗어있다.

이 구간의 지형은 대령강의 흐름과 함께 이루어진 벼랑과 언덕, 높은 산줄기들로 이루어져있다.

성벽은 강줄기를 따라 그 동쪽기슭에 쌓아 밖으로는 대령강이 막고 성벽밑으로는 언덕이나 벼랑이 막아 성의 방위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대령강계선의 기본장성에서 뻗어나간 차단성-가지성들은 태천군 학당리와 덕화리사이의 약상고개, 태천구성남쪽, 동북쪽 검산(548m)방향, 삼각산방향, 동창군 학봉리와 학송리사이의 진고개, 성고개를 지나 당아산으로 이어지는 곳을 비롯하여 주요길목과 령마루, 요충지마다에 기본장성에 잇닿아 차단성형식으로 길지않게 쌓아졌다.

이런 차단성-가지성들은 기본장성의 방위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제2의 방어선의 사명을 지니고있다.

대령강의 장성방어선에 있는 진, 보성들은 장성부근의 10~30리어간에 배치되어있다.

이 계선에 있는 진, 보성들로서는 박천군읍의 박룡성, 중남리의, 할미성, 원남리의 덕령산성, 녕변군 고성리의 무주성, 태천군 룡흥리의 터무산성, 학당리의 연산리성, 덕화리의 태천구성, 동창군 신안리의 화동성 등을 들수 있다.

박룡성은 대령강장성에서 약 600m 떨어진 높이가 76m 되는 야산의 룡선을 둘러막은 성이다.

내성과 외성으로 된 성은 둘레가 약 3.5km이다.

성벽은 흙으로 쌓았는데 그 높이는 야산의 경사면까지 합치면 약 10m정도 된다.

성안에서는 물원천이 풍부하고 고구려시기와 그 이후시기의 기와조각, 도기, 사기조각들이 드러났다.이 성은 장성과 가까이에 있으므로 장성방어의 군사적거점인 진성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수 있다.

할미성은 장성의 동쪽 약 400m 거리에 있는 둘레가 약 800m 되는 고로봉식산성이다.

성은 장성의 동쪽 제일 높은 봉우리우에 전망대를 두고 그 좌우의 험한 산릉선을 리

용하여 돌과 흙을 섞어 성벽을 쌓았다.

성안에서는 회색의 이깔나무잎무늬기와가 드러났다.

덕령산성은 장성의 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덕령산(151m)에 위치하고있다. 둘레는 약550m이다. 성벽은 본래 돌로 쌓았는데 후에 흙을 덧씌워 토성처럼 보인다.

이 산성은 대령강쪽을 내다볼수 있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있으므로 유사 시에는 지휘처로 리용하고 평상시에는 하나의 보성이였을것으로 인정된다.

무주성은 장성벽에 달려있는 비교적 큰 진성의 하나이다.

이 성은 73.6m 고지를 제일 높은 봉우리로 하여 뺨은 산릉선을 둘러막은 고로봉식의 산성인데 서남쪽 성벽이 장성벽의 일부로 되어있다.

성안에는 두개의 골짜기가 있다.

내성과 외성으로 된 이 성은 둘레가 약 4km의 토성이다.

무주성은 남문부근을 내놓고는 심한 경사면을 리용하였으므로 바깥면의 성벽높이가 10~20m 된다. 이 성은 박릉성과 같이 구릉지대와 평야지대를 포괄하고 있어서 평산성의 요소도 가지고있다. 서문을 비롯한 성안의 여러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옛 기와들이 발견되였는데 그중에는 고구려시기의 기와도 있다.

이 성은 장성과 잇달린 큰 진성의 하나로서 장성방위의 좋은 거점이였다고 인정된다.

터무산성은 대령강의 한지류인 고암강의 남쪽기슭에 있는 s지막한 터무산(101m)에 형성된 고로봉식산성이다.

성벽은 본래 돌로 쌓았던 것인데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있다.

장성벽은 이 성의 바로 밑을 지나가고있다. 이 성은 장성을 넘어 녕변, 태천방향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잡고있으므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방어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생각된다.

연산리성은 대령강이 학당리벌을 감아돌아흐르는 가까이에 위치하고있는 둘레 1.2km의 평산성이다.

이 성은 장성벽에서 200~500m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장성방위를 위한 진성의 하나였다고 인정된다.

태천구성(태주성)은 연산리성에서 북쪽으로 약 20리 떨어진 대령강동쪽의 가파로운 산줄기와 2개의 골짜기를 막은 둘레 약 4.2km의 고로봉식산성이다.

성은 내성, 외성, 북성으로 구분되였다. 성안은 지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개의

샘, 우물이 있어 물원천이 풍부하다.

성벽은 본래 돌성으로 쌓았던것인데 후에 개축하면서 돌과 흙으로 쌓았다.

성안의 여러곳과 성벽근처에는 각종 기와조각들이 많이 널려있는데 발굴된 성벽기초와 성심에서 고구려 시기의 기와들이 많이 나왔다.

태천구성동남 약 3~4리 되는 곳에는 덕화리소재지뒤산릉선과 그다음 151m고지의 중턱을 돌아가면서 쌓은 둘레 약 1.5km의 돌서잉 있다.

이 성은 장성에서 2km 남짓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역시 장성방위를 위한 진성이었다고 인정된다.

동창군 신안리 소재지에도 장성벽에 잇닿은 자그마한 방형의 석성이 있는데 이 성역시 장성의 방비를 위한 보성으로 인정된다.

이밖에도 대령강계선의 장성에는 대령리 검은비성, 박천군 청산리에 고로봉식산성, 단산리의 작은 토성 등진 보성들이 중요한 요충지마다에 자리잡고있다.

삼봉-신봉장성은 대령강장성이 지나가는 박천군 송남리 건너편에 있는 박천군 삼봉리에서 시작하여 운전군 대연리를 지나 가산리, 청정리, 신오리, 정주시 일신리, 오산리를 거쳐 신봉리 바다가에까지 약 130리(52km) 구간에 뻗어이쥘.

이 장성은 삼봉리 계지천 남쪽기슭의 낮은 고지(62m)에서부터 시작하여 황토산(263m)의 북쪽릉선을 타고 서쪽으로 뻗어 운전군 대연리 성고개를 지났다.

그리고 성고개에서 다시 높은 릉선을 타고 서쪽으로 소귀재를 지나 룡봉리 신흥부락 서쪽에서 남쪽으로 꺾어 목우산(414m) 서쪽릉선을 거쳐 청정리 서북릉선을 타고 내려왔으며 장수탄강을 건너 릉선을 따라 계속 남쪽으로 뻗어 오봉산(341m)을 넘어 신봉리 바다가 해장북쪽에 가닿았다.

삼봉-신봉장성에도 제2의 방어선으로 되는 작은 가지성-차단성이 있으며 장성을 지키기 위한 진, 보성들이 있다.

작은 가지성은 장성이 지나가는 소귀재서쪽 봉두산(389m)방향과 박천군 청룡리를 넘어가는 고개계선에 있다.

봉두산방향으로 갈라져나간 보조가지성은 효성령(새빌령)고개를 넘어 남으로 형제봉(297m)을 지나 송학리의 대령강하구에 이른다. 이 보조장성의 연장길이는 약 52리(20km)정도이다.

삼봉-신봉장성을 지키기 위한 진, 보성으로서는 봉두산성, 익성동고성, 성안고성, 레의

보성, 청정리옹성, 삼태봉보성 등이 있다.

봉두산성은 운전군 가산리봉두산에 있다. 이 성은 본래 내, 외성으로 된 길이 약 1.5km의 돌성이었는데 그후 효성령 남쪽릉선을 따라 확장된 둘레 약 6km의 고로봉식산성이다.

여기에서는 해살무늬가 찍힌 붉은색수기와막새가 나왔다.

봉두산선은 고구려시기의 신도성, 고려초의 습흥가주성이다.

익성동고성은 정주시 오산리 익성도영 삼봉-신봉장성을 한쪽성벽면으로 하고 동남방향으로 치우쳐 형성된 고을성이다.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졌으며 낮은릉선을 따라 둘러막은 평지성으로서 둘레는 약 2km정도이다.

성안고성은 박천군 삼봉리 장성계선에서 남쪽으로 수백m정도 떨어져 있는 진성이다.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있는데 내성은 둘레가 500m정도 되고 외성은 둘레가 1km정도이다. 외성의 서쪽면은 장성의 가지성을 리용하고 동쪽면은 대령강가의 급한 경사면을 그대로 리용하였다.

래의보성은 운전군 대연리 래의지(래의 저수지)부근에 있는데 지금은 일부가 저수지강태 들어갔다. 이성은 징성계선에서 남쪽으로 1km정도 떨어진 곳에 둘러 쌓은 작은 보성이다.

청정리옹성은 운전군 청정리 장수탄강을 건너 장성이 지나는 남쪽릉선에 축조된 450m정도 되는 토석혼축의 작은 보성이다.

삼태봉보성은 정주시 신봉리 삼태보에 쌓은 둘레가 300m정도 되는 작은 보성이다. 돌로 성벽을 쌓았으며 거기에서는 황토색기와가 나왔다.

이밖에 삼봉-신봉장성계선의 효성령남쪽산릉선의 령마루를 비롯한 곳곳에는 감시대유적들도 남아있다.

대령강장성은 축조형식과 방법에서 일련의 특징을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주로 분수령, 산줄기, 등성을 따라가면서 쌓은 다른 장성들에 비하여 자주 변화되는 지형, 지세에 따르는 다양한 축조형식과 방법이 적용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즉 대령강계선의 기본장성은 성벽을 강줄기를 따라 그 동쪽기슭의 벼랑과 언덕, 높은 산릉선에 쌓음으로써 강을 자연적으로 장애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성벽밑의 언덕이나 벼랑들도 성의 방어력을 높이는데 최대한 리용하였으며 삼봉-신봉장성계선에서는 성

벽이 험준한 산줄기와 산릉선을 지나야 하는 지형조건에 맞게 성줄기가 장수탄강 하나만을 넘었을뿐 될 수록 산릉선을 따라 쌓았다.

성벽은 돌 또는 흙으로만 쌓기도 하고 돌과 흙을 섞어 쌓기도 하였다.

바위가 많은 산릉선에서는 성벽을 돌을 다듬어쌓고 강변의 평지대가 길게 계속되는 곳들에서는 실정에 맞게 흙으로만 쌓거나 돌과 흙을 섞어 쌓았다.

성벽은 대체로 산릉선경사지에서는 외면쌓기방법이 적용되었고 산릉선마루나 평지대에서는 양면쌓기방법을 적용하였다.

돌성벽은 대령강계선의 기본장성에서는 중남리 북쪽산릉선과 풍림리릉선, 룡전리장성 문이북, 학봉리, 학송리 애기바위사이, 신안리 성흥부락에서 볼수 있으며 삼봉-신봉계선의 장성에서는 삼봉리, 대연리, 가산리, 룡봉리의 전 구간과 남청정 옷성재부근, 청정리 백미산서북쪽릉선, 연향산릉선을 비롯한 신봉리, 송학리일대에서 볼수 있다.

돌성벽을 쌓은 방법은 대체로 산등성이, 산허리, 산기슭 또는 강기슭산릉선을 리용하여 앞면을 파내고 돌과 흙을 섞어 다진 기초를 만든 우에 길이 50~70cm, 너비 30~50cm, 높이 25~30cm 정도의 비교적 큰 성돌로 밑부분 3~4단까지는 안으로 조금씩 계단을 지으면서 쌓았다. 그 다음 그 우에 조금 작은 성돌로 바깥면만을 맞추면서 쌓아올리는 외면쌓기수법으로 축조되었다.

성벽의 안쪽은 막돌을 차근차근 쌓거나 돌과 흙을 다져넣었다.

돌성벽의 높이는 대체로 3~7m로서 일정하지 않다.

토성은 주로 토석혼축이 기본이고 강자갈과 흙을 다녀쌓기도 하였다.

박천군 중남리 남쪽 삼봉리에서 황토산으로 넘어가는 구릉지대에 쌓은 성벽의 토성벽으로서 오늘도 비교적 잘 남아있다. 축조방법을 보면 성벽은 높이 5~7m, 밑너비 10m, 옷너비 1~3m정도인데 성벽밑부분은 작은 돌을 깔고 그 옷부분은 작은 돌과 흙을 섞어 쌓았다.

이러한 토성축조형식은 운전군 성고개와 박천구 원남리, 녕변군 고성리일대의 성벽에서도 볼수 있다.

장성벽이 대령강변의 절벽을 지나는 곳에서는 따로 성벽을 쌓지 않고 절벽을 그대로 리용하였다.

이와 같이 대령강장성은 대령강계선과 삼봉-신봉계선의 구체적인 지형지세에 따라 축조형식에서 차이가 일부 있으나 축조형식과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장성에서 드러나는 유물도 모두 같다.

장성유적에서 나온 유물을 보면 기와가 기본이고 그 밖에 자기 조각들도 일부 있다.

기와는 대체로 회청색, 황토색, 붉은색이며 무늬는 이갈나무잎무늬, 격자무늬, 사선무늬로서 질과 색깔, 무늬 등이 꼭같다.

이것은 대령강계선의 기본장성과 삼봉-신봉장성이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같은 시기에 축조되어 하나씩 장성방어체계를 형성하고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령강계선의 기본장성은 대령강을 자연해자로 하여 든든한 방어시설을 갖추고있었기 때문에 당시 압록강이남에서는 매우 중요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령강하구는 운전군에서 청천강하류에 합류되기 때문에 대령강의 기본계선보다 방어적기능이 약회된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일대의 자연지리적조건을 옹계 리 용하여 박천군 중남리 건너편 삼봉리에서 운전군 대연리를 지나 가산리, 룡봉리, 청정리, 정주시 오산리를 거쳐 신봉리 바다가에 이르는 구간에 장성을 쌓아 그 방어력을 더욱 높이어서 다시 운전군 가산리에서 봉두산을 넘어 송학리 바다가로 나가는 구간에도 가지성을 쌓음으로써 2중3중으로 적의 침입로를 차단했던것이다.

결국 대령강장성은 대령강계선의 기본장성과 그 가지성의 길이가 410리(164km)이상, 삼봉-신봉장성과 그 가지성의 길이가 185리(74km)이상으로서 총 연장길이가 근 600리(238km)나 되는 대규모장성이다.

지난 시기 대령강장성에 대하여서는 직접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일부 지점에서의 축조형식과 유물을 가지고 고려시기의 성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었다.¹⁾

그러나 대령강장성에 대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연구자료들로 미루어보면 이 장성을 고구려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볼수 있게 한다.

그것은 우선 장성과 그를 지키기 위한 진, 보성들이 고구려성축조형식으로 쌓아진 것을 통하여 알수 있다.

실례로 박천군 중남리, 삼봉리, 태천군 양지리, 풍림리, 동창군 학성리, 신안리, 정주시 신봉리, 운전군 대연리, 가산리, 청정리일대의 장성벽의 밑부분 계단 식축조형식과 봉두산성, 할미성, 무주성, 터무산성, 태천구성 등 장성의 진, 보성들의 고로봉식 산성구조는 고구려의 고유한 성축조형식으로서 이 장성을 고구려 장성으로 볼수 있는 근거로 된다.

1) 《조선고고연구》 주체76(1987)년 2호, 40~45페이지 《력사과학》 주체76(1987)년 2호, 28~29페이지

또한 장성방위시설에서 드러난 유물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

장성의 전 구간과 장성을 지키기 위한 진, 보성들에서 드러난 붉은색, 황토색, 청회색, 회색의 이빨나무잎무늬, 격자무늬, 사선무늬기와들은 고구려시기의 여러 유적들에서 나온 것과 같은 기와류이다.

이빨나무잎무늬기와는 기와가 나오는 거의 모든 지점에서 나왔는데 이런 기와무늬는 안학궁터와 평양성을 비롯한 고구려 유적들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격자무늬, 사선무늬기와도 평양성과 안학궁터, 대성산성, 장수산성 등 고구려유적들에서 알려졌다.

그리고 청회색, 회색, 붉은색 등의 기와도 고구려 시기의 평양성과 대성산일대의 유적들에서 나왔다.²⁾

특히 대령강장성의 진성의 하나인 봉두산성에서 나온 해살무늬가 찍힌 붉은색수기와 막새는 장수산일대의 고구려유적에서도 나왔다.

대령강장성유적에 대한 조사발굴과정에 드러난 고고학적자료들을 종합하면 이 장성이 고구려시기에 쌓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옛 기록에도 대령강장성이 고구려시기에 쌓아졌다고 볼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대령강장성의 진성의 하나인 봉두산성에 대해 《신도성》으로 전해졌으며 고려시기에 와서 습흥, 거주성으로 불리우면서 수리도 하고 보축도 하였다는 기사가 여러군데 보인다.

특히 《신안지속편》(1933년)에 보이는 정주부의 동북30리에 있는 장성에 대한 기록은 바로 지금의 삼봉-신봉일대의 대령강장성유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정된다.

정주시 오산리 익성동고성(익주성)은 고구려때 쌓았다고 기록되어있다.³⁾

이것은 삼봉-신봉장성뿐아니라 그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대령강계선의 기본장성도 고구려시기에 쌓아졌다고 입증해주는 자료로 된다.

대령강장성의 구체적인 축조시기는 대령강장성에서 발굴된 유물을 가지고 추정할수 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대령강장성유적에서 발굴된 것과 같은 무늬의 기와는 고구려유적

2) 《대성산일대의 고구려유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주체53(1964)년, 22페이지

3) 《신안지속편》 권1 군명 성곽조

들에서 많이 보이는 것들로서 붉은색, 황토색기와는 주로 고구려전반기 청회색, 회색기와는 고구려후반기에 흔히 보이는 것이다.

고구려후반기부터 많이 쓰인 청회색, 회색기와는 안학궁터(5세기초)와 평양 장안성(6세기말)에서 많이 쓰이였으므로 그것이 주로 사용된 대령강장성의 축조년대는 평양장안성(평양성)이 건설되던 시기 또는 그 이후시기로 볼수 있을것이다.

이상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대령강장성의 축조년대는 늦게 잡아보아도 고구려가 새 평양성에 도읍한 이후시기인 6세기말 7세기초로 추정할수 있을것이다.

이 시기는 평양성이 기본수도로 된 후 서북방, 북방, 동북방, 남방으로 령토가 확장됨에 따라 새로 령토로 된 지역들에서 지역방위를 위한 성곽시설이 수많은 건설되고 또 국경지대로부터 평양으로 들어오는 길목마다에 적지 않은 성들이 더 축조되어 성곽방위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던 때이다.⁴⁾

물론 대령강장성이 압록강이남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방어계선인 것으로 하여 고려시기에 와서도 일련의 성들이 보충되거나 새로 축조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유물자료들과 문헌기록들이 그대로 보여준다.

녕변군 고성리무주성과 태천군 덕화리 태천구성(태주성), 운전군 가산리 봉두산성 등의 성들은 고려시기에 여러차례 보충, 개축하였다. 그것은 무주성, 박중성, 태주성일대에서 고려푸른자기쪽각을 비롯하여 고려시기의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

그리고 《고려사》 권82 병지 진수 정보조에 박릉(947년), 장천진(950년), 덕창진(947년), 안삭진(952년, 970년), 덕성진(947년) 등에 진성, 보성을 쌓은 기사도 보인다.

그러나 《고려사》의 이러한 축성기사는 개별적인 진, 보성을 축조한 기록이지 장성 축조기사는 아니다.⁵⁾

그러나 력사적사실과 고고학적자료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대령강장성은 중국의 만리장성과는 성의 축조시기와 방향, 축조목적과 사명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것으로서 그들의 주장이 전혀 무근거하며 허황한것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대령강장성은 성줄기가 뻗어나간 방향과 성의 위치선정, 축조방식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측의 장성과는 정반대의 사명을 지닌 서북방에서 침습한 적을 방비할 목적

4) 《고구려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86(1997)년, 81페이지

5) 《료해문물학간》(중문) 1994년 2기, 84페이지

에서 쌓아진 고구려의 장성방위시설이다.

만일 중국의 장성과 관련이 있는것이라면 장성은 큰 강을 사이에 두고 그 동쪽기슭이 아니라 서쪽기슭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어놓은 장성계선인 대령강의 서쪽강변과 녕변군 동쪽변두리, 청천강의 서쪽기슭에는 그 어떤 성시설도 없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령강장성은 고구려가 대령강계선에 쌓은 방어시설로서 중국의 연, 진나라 장성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한 락랑군의 위치문제에 대하여

김 유 철 (Kim, Yu Chol, 김일성종합대학)

잘 알려져있는바와 같이 《사기》(조선렬전)나 《한서》(권6 무제기 원봉 3년)에는 한나라가 B.C 108년에 고조선을 무너뜨린 다음 그 지역에 저들의 행정단위로서 락랑, 현도, 진반, 립둔의 4개 군을 설치하였다고 써여져있다. 그러므로 이 이른바 《한4군》이 기본상 고조선의 옛 령역안에 있었다는 것은 더 논의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한4군》의 구체적인 위치와 관련하여 완전히 상반되는 두가지 견해가 심각한 대립을 이루고있다. 그 하나는 락랑군을 비롯한 《한4군》이 오늘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이남, 조선반도안에 자리잡고있었다는 봉건대국주의, 사대주의사가들, 부르조아어용사가들의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압록강이북, 료동지방에 있었다고 보는 우리 학계의 주장이다. 그가운데서 전자는 고조선말기의 령토가 압록강-청천강이남지역에 국한되어있었고 B.C 109~108년 전쟁때 한나라가 고조선의 전 지역을 다 차지하였다는 전제에서 출발한것이라면 후자는 고조선이 그 말기에 조선반도 중부지역으로부터 대릉하이동의 료동지방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었고 한나라는 이러한 고조선의 령토가운데서 압록강이북지역만을 강점하였을뿐 그 이남으로는 더 기여들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것이다.

지잔날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어용사가들을 내세워 평양을 비롯한 서북조선일대의 고대유적들을 마구파헤치고 거기서 드러난 유물들을 모조리 중국의 《한식유물》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고고학적자료》에 근거하여 락랑군-평양설을 하나의 정설로 체계화해놓았다. 그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나라 현도군의 치소가 처음에는 지금의 함흥일대

에 있었고 립둔군은 강원도, 진반군은 오늘의 황해남북도 지어 충청남북도, 전라북도까지 차지하고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한나라가 이렇게 고조선을 무너뜨린 다음 평양을 중심으로한 조선반도지역에 락랑군을 비롯한 《한4군》을 설치하고 400여년동안이나 지배하였으며 조선의 력사와 문명이 《한4군》설치로부터 시작된듯이 광고하였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의 일부 학자들이 이 낡은 주장을 그대로 곱씹고있다. 그들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기자조선》설, 《위만조선》설 등을 끄집어 내어 고조선자체를 조선력사원에서 떼어내고 또 여기에 《한4군》의 위치문제와 관련된 낡은 주장을 얼버무려 놓은 다음 그것을 확대해석하면서 조선은 력대로 압록강-청천강 이남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료동지방에서 성립된 고구려역시 조선민족의 나라가 될 수 없고 조선력사에 포함시킬수 없다는 뼈뚫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4군》의 위치문제와 관련된 논쟁은 오늘날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한4군》의 위치문제와 관련된 논쟁은 한나라와 고조선의 경계를 이루고있던 패수의 위치문제로부터 만리장성과 연, 진, 한나라시기의 료동군의 위치문제, 연나라 진개에게 빼앗겼다는 고조선의 서방 《2,000여리》에 대한 해석문제, 와검성의 위치문제, 《한서》지리지의 내용과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타난 락랑국에 대한 리해문제, 평양 일대에서 드러난 고대시기 고고학적자료들에 대한 해석문제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찰범위를 락랑군 하나에 국한시키고 우리 학계가 주장하는 락랑군-료동설의 근거를 크게 중점적으로 제기하려고 한다.

락랑군이 오늘의 료동지방에 있었다는 것은 락랑군과 립접해있던 한나라 료동군의 위치자체가 잘 말해준다.

일부 사람들은 연, 진시기이래 료동군이 이미 지금의 료동지방을 차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 료동군을 출발진지로 한 한나라군대의 침공지역 따라서 《한4군》설치지역이 료동의 남쪽, 조선반도지역으로 될 수밖에없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그러나 료동군이 지금의 료동지방에 자리잡게 된것은 고조선이 무너진 이후의 일이고 그 이전 연, 진시기이래 전환전까지 그것은 지금의 료동이 아니라 저 멀리 대릉하서쪽 오늘의 료서지방에 있었다.

《한서》지리지 료동군소속 험독현조에는 험독현이 《조선왕 만의 도움》이었다고 한 후한 응소의 주석이 붙어있다.

료동의 험독이 만의 도읍지였다고 한것은 만이 정변을 일으켜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을 차지하기 전 후국 당시의 도읍을 가리킨다. 《사기색은》의 저자가 응소의 이 주석을 인용하면서 《조선왕의 옛 도읍》이라고 《옛》자를 첨부한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것이였다.

그런데 료동군 험독현은 오늘의 대릉하 동쪽, 료동하의 서쪽인 북진동남지역으로 비정되고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해보면 B.C 194년경 만의 정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지역은 분명히 한나라가 아니라 고조선의 령역이였다. 그 이후 B.C 109~108년 전쟁이전시까지 고조선이 자기의 서부지역을 한나라에 빼앗겼다고 볼 근거가 없는 조건에서 그러한 상태가 고조선 마지막시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의 료동군이 고조선존재 전기간 료하를 넘어선적이 없었으며 그것은 대릉하서쪽의 료서지역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 이전 연, 진시기이래의 깊은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었다.

《료동》이라는 이름이 중국의 고대기록에 나타나는것은 일찍부터이지만 《료동군》이라는 구체적인 지방행정단위가 설치된것은 연나라때였다. B.C 3세기초에 연나라는 조양으로부터 양평에 이르는 장성을 쌓고 상곡, 어양, 우북평, 료서군과 함께 료동군을 설치하였다.¹⁾

연나라의 료동군은 지금의 료동이 아니라 란하동쪽, 산해관일대에 자리잡고있었다.

연나라시기의 료수와 관련된 자료들은 당시에는 란하동쪽을 료동이라고 불렀고 바로 여기에 료동군이 자리잡고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사람들은 흔히 료수라고 하면 지금의 료하를 먼저 생각하지만 연나라시기의 료수는 지금의 료하가 아니라 란하였다.

B.C. 7세기 중엽에 제나라 환공이 령지, 고죽, 비여 등을 토벌한적이 있는데 바로 이때 환공은 연나라를 거쳐 동쪽의 고죽을 치러 가던 도중에 료수라는 강과 맞다들었다고 한다. 제 환공이 맞다든 이료수는 연나라[도읍은 계(베이징일대)]동쪽, 고죽(오늘의 하북성 료룡현 일대)의 서쪽에 있던 강이였고 따라서 그것이 란하였으리라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특히 《수경주》 유수(란하)조에는 환공이 고죽을 친 이야기가 료수로 떠내려오는

1) 《사기》 권110 흉노열전

고죽국임금의 관을 비여현(관하하류지역)사람들이 건져내어 땅에 묻고 사당을 세웠다는 전설과 함께 실려있어 유수-관하가 한때 료수로 불리웠다는것을 더욱 명확히 알수 있게 한다. 《산해경》 해내동경의 료수와 관련된 자료도 동남으로 흘러 발해로 들어간다는 강의 흐름방향(지금의 료하는 동남이 아니라 서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과 그 상류가 위고-우북평일대를 거치였다는 사실 등을 전하고 있어 B.C. 3세기이전 연나라시기의 료수가 지금의 관하였음을 보여주고있다.

연나라 장성과 료동군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면 료동군의 위치에 대한 더욱 뚜렷한 표상을 가질 수 있다.

연나라가 장성을 쌓고 그 일대에 새로 설치한 5개군가운데서 료동군은 제일 동쪽에 있었다. 그런데 연장성의 동단(동쪽끝)은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단과 기본상 일치하는것이고 만리장성의 동단은 갈석이 있는 곳이었다.

만리장성동단의 갈석은 지금의 산해관지방에 있었다.

갈석이 산해관지방에 있었다는것은 문헌적으로도 뚜렷하지만 근래에 이 일대에서 새롭게 발견된 진, 한대의 건축유적에 의해 더욱 명확해졌다.

1982~1984년에 산해관에서 10여리 떨어진 료녕성 수중현 만가향에서 2개의 큰 궁전급유적이 발굴되었는데 그 하나는 진시황때의 《갈석궁》(진시황의 갈석행차때 건설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무제의 갈석행차때 건설한 《망해대》(한무대)유적으로 확인되었다. 바로 이 진, 한대유적 앞바다가운데 즐지어 서있는 바위들이 유명한 고갈석이라고 한다.2)

만리장성, 따라서 연나라장성의 동단이 지금의 산해관이었던만큼 연장성의 동단에 위치한 료동군도 관하동쪽 즉 당시의 료동지방이었던 산해관일대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료동군은 진나라시기에도 기본상 산해관일대에 있었고 전한 전기에도 여전히 산해관 일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3)

전한 전기에 고조선과 한나라사이의 경계는 패수였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패수를 오늘의 압록강이나 청천강에 비정하려 하지만 그것은

2) 《동북력사지리론저회편》 제2집, 1987년 251~254페이지

3) 《고조선력사개관》 사회과학출판사, 주제 88(1999)년, 201페이지

오늘의 룡동지방에 원래부터 한나라의 룡동군의 자리잡고있었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출발한 잘못된 주장이다.

고조선과 한나라의 경계를 이루고있던 패수는 압록강이나 청천강이 아니라 룡하서쪽의 대릉하였다.

우에서 이야기되었지만 전한 전기의 룡동군이 산해관일대를 중심으로 한 오늘의 룡서 일대에 자리잡고 있었고 험독 즉 오늘의 북진일대가 B.C. 108년전까지 고조선령토였던 조건에서 당시 두 나라의 경계를 이루고있던 패수는 산해관의 동쪽, 험독(북진동남지방)의 서쪽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이 사이에서 두 나라의 경계를 이룰만 한 강으로 대릉하밖에 없다.

료동고새와 패수와의 관계, 룡동고새와 패수, 렬수(료하)사이의 상대적위치를 따져보아도 그렇고 《수경주》와 《산해경》의 패수[溟水, 취수관계의 자료들을 따져보아도 당시의 패수가 오늘의 대릉하였다는 것이 뚜렷하다. 대릉하의 옛 이름이 백랑수였는데 《백랑(배라)》이 《패수》의 고대조선음인 《퍼라》와 통한다는 사실도 무시할수 없다.

고조선과 한나라사이의 경계를 이루고있던 패수라는 강이 오늘의 대릉하였던만큼 한 나라의 제일 동쪽에 있던 룡동군은 패수-대릉하서쪽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고조선-한전쟁이 끝난 다음 한나라는 이러한 룡동군 바로 이웃에 락랑군을 새로 설치하였다. 그런것만큼 설치당시의 락랑군의 위치는 룡동군의 동쪽린접지대 즉 패수(대릉하)의 동쪽, 오늘의 룡동지역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설치당시의 락랑군이 오늘의 룡동지방에 있었다는 것은 B.C. 109~108년 한나라와의 격전이 벌어진 왕검성의 위치를 놓고도 말할수 있다.

한나라는 고조선의 왕검성을 함락한 다음 거기에 락랑군의 수현(군의 소재지 현)인 조선현을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한나라와의 격전이 벌어진 왕검성의 위치를 정확히 밝히는것은 한 락랑군의 위치비정에서 관건적고리의 하나로 된다.

고조선에는 평양의 기본수도 왕검성밖에 부수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수도도 왕검성이라고 불리웠다.

이것은 마치 고구려시대에 기본수도 평양이 있고 그 남쪽과 북쪽에 또 다른 부수도 평양(남평양과 북평양)이 있었던것과 비슷하다.

B.C. 109~108년전쟁때 고조선의 왕이하 대신들이 집결되어 적과 맞서 싸운 왕검성은 평양의 기본수도 왕검성이 아니라 룡동지방의 개현(개주시)일대에 있던 부수도 왕검성

이었다.

료동의 개현일대에 고조선말기의 또 하나의 왕검성, 기본수도와 구별되는 부수도 왕검성이 있었고 여기서 한나라와의 격전이 벌어졌다고 보는 근거는 이곳의 지리적관계가 고조선-한전쟁시기의 왕검성관계 기사들의 내용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사기》 조선렬전에 의하면 B.C. 109~108년 전쟁때 한 무제는 원래 저들의 수군을 렬구 즉 렬수의 하구에 대기시켰다가 륙군과 합세하여 왕검성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므로 렬수를 찾으면 한나라와의 격전이 벌어진 왕검성의 위치비정에서 실마리를 잡을수 있을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고조선말기의 렬수는 오늘의 룡하였다. 그것은 렬수가 발해로 흘러드는 룡동지방의 강이고 대릉하(패수)와 하구를 가까이 하고있던 강이기때문이다.

고조선-한전쟁시기에 제(산동반도)를 출발한 한나라 수군이 발해로 항행하여 렬구(렬수의 하구)에 이르렀던것으로 보아 렬수는 발해로 흘러드는 강이었다고 볼수 있다. 진(晋)나라시기의 광박은 《방언》의 조선렬수에 대해 주석하면서 렬수는 룡동에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산해경》에서는 패수가 《렬도에 흘러든다.》고 하였는데 이 렬도를 렬수의 니토지대 즉 렬수하구의 충적지대로 본다면 렬수는 패수와 하구를 가까이 한 강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듯 발해로 흘러드는 고조선시기의 렬수, 당시의 패수(대릉하)와 하구를 가까이 한 그런 렬수는 룡하로 보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문제의 왕검성은 오늘의 룡하일대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B.C. 109~108년전쟁때 한나라 수군은 렬구에서 대기하다가 륙군과 합세하여 왕검성을 공격할때 대한 명령을 받았지만 륙군의 전진이 저지당하게 되자 공명심에 들떠 단독으로 왕검성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왕검성방어군의 반격에 부딪쳐 거의 전멸당하고 그 우두머리 양복도 혼자 산속에서 10여일이나 헤매다가 바다가로 도망쳤다고 한다. 이것은 고조선-한전쟁이 벌어진 왕검성이 바다가에서 그리고 렬구 즉 룡하하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주변에 산도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룡동의 개현(개주시)은 이러한 지리적조건에 잘 어울리는 곳이다.

개현일대는 크고작은 산들로 둘러싸여있고 바다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특히 이 일대에는 고조선시기 지배계급의 무덤인 고인돌무덤이 밀집되어있고 개현의 석봉산에는 굉장히 큰 특대형고인돌무덤도 있다. 이것은 개현일대가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집결되어 살던 고조선시기의 중요한 정치적거점의 하나였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개현일대에

는 지금도 왕검성이라는 이름과 깊은 관련을 가진 웅악(곰산)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다. 고대지명들에서 볼수 있는 《개마산》, 《웅심산》(곰산), 《금미달》, 《고마성》의 《개마》, 《곰(고마)》, 《금》 등은 다 《검》과 통하는 말로서 크다는 뜻 혹은 임금을 의미한다.

이렇듯 룡동의 개현일대에 한나라 침략군과 최후결전이 벌어진 고조선말기의 부수도 왕검성이 자리잡고있었고 한나라가 이러한 왕검성을 점령하고 그 일대에 락랑군을 설치했던만큼 락랑군이 룡동지방에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락랑군의 소속현들가운데는 고조선시기의 패수, 렬수와 깊은 관련을 가진 패수현과 렬구현이 있었는데 설치당시의 이 두현의 위치를 따져보면 락랑군의 지역적포괄범위도 그려볼수 있다. 패수가 고조선말기 한나라와 경계를 이루고있던 지금의 대릉하였고 렬수가 발해로 흘러드는 오늘의 룡하였으므로 설치당시의 패수현은 대릉하부근, 렬구현은 룡하하구일대에 있었으며 따라서 당시의 락랑군은 패수(대릉하), 렬수(료하)일대를 포괄하는 룡동의 넓은 지역을 자치하고있었고 그 중심지(군치)는 룡하하류의 개현(개주시)일대였다

락랑군의 위치는 B.C. 75년경 룡동군의 동천과 관련하여 일정하게 변화였다.

패수(대릉하)를 경계로 락랑군과 접하고있었던 룡동군은 그후 B.C. 1세기 전반기 《한4군》 지역안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는 한나라 지배층의 기도에 따라 대릉하동쪽 《한4군》 지역안으로 침투하게 되었다.⁴⁾

료동군의 동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근거하여 논할수 있지만 《통전》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할수 있다. 당나라의 두우는 《통전》 고구려전의 한주석에서 《불내, 둔유, 대방, 안시, 평곽, 안평, 거취, 문성(문현)이 다 한나라 2군(락랑군과 현도군-인용자)의 땅이었다.》고 하였는데 《한서》 지리지를 보면 불내, 둔유, 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다 룡동군소속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안시, 평곽, 안평, 거취, 문현 등이 한때 락랑군과 현도군소속으로 되어있었던 사실과 함께 이 락랑군과 룡동군이 락랑군과 현도군에 소속되었던 지역을 차지하게 된 계기 즉 《한4군》 지역으로의 룡동군의 동천이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료동군의 이 동천과 관련하여 락랑군은 서쪽지역을 룡동군에 내주고 남쪽으로 일정하게 밀리우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에도 락랑군은 여전히 룡동지방에 뿌리박고있었다.

4) 《고조선력사개관》 사회과학출판사, 주체88(1999)년, 205~206페이지

A.D. 30년에 후한의 광무제가 태수 왕준을 파견하여 락랑군에서 일어난 왕조의 폭동을 진압한 일이 있다. 이때 왕준이 거느린 군대가 폭동군을 치면서 이른 곳이 룡동이였다고 한다. 이것은 후한초기의 락랑군이 여전히 룡동지방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나라의 리현도 왕조의 폭동에 대해 주석하면서 락랑군이 《료동에 있었다.》고 하였고 락랑군 소속현의 하나인 장잠현에 대해서 《료동에 있었다.》는 주석을 달아놓았다.⁵⁾

두우도 《통전》 권178 유수조에서 원도(현도), 락랑 등 군들은 다 《지금의 룡수동쪽》 즉 오늘의 룡동지역에 있었다고 하였다.

제반 사실은 B.C 1세기 전반기 룡동군 동천이후에도 락랑군이 계속 룡동지방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룡동군의 동천과 관련하여 축소, 이동의 혼잡속에 있던 이 시기 락랑군의 소속현들은 《한서》 지리지 룡동군조를 따져보면 룡동반도의 해성-영구이남, 대양하이서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 락랑군이 압록강이북의 룡동지방에 있었다는 것은 압록강류역 이남지역의 형편을 놓고도 말할수 있다.

우리 학계는 고조선이 무너진 다음 압록강류역 이 남의 옛 고조선지역에 황룡국, 락랑국, 맥국을 비롯한 고조선계통의 소국들이 새로 생겨나 상당히 오래동안 존재하였다는 것을 밝히었다.⁶⁾ 《후한서》나 《삼국지》의 고구려전들에서 고구려가 남쪽으로 《조선, 예맥》과 접하였다고 하였지 《한4군》과 접하였다고 쓰지 못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여기의 《조선》은 A.D. 37년 평양의 락랑국이 무너진 다음에 나온 고구려의 후국이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아도 한 락랑군이 조선반도의 서북지방에 틀고앉아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물론 서북조선에 한의 락랑군이 있었던것처럼 묘사된 문헌기록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한서》의 저자 반고가 지리지에서 《한4군》의 위치를 아리송하게 만들어 놓고 특히 《수경주》의 저자 력도원이 패수(고구려시기의 패수)가 락랑(국)과 조선(후국)의 치소(평양)를 지나 흐른다고 한 고구려사신의 말을 자의대로 락랑군 조선현을 지나 흐른다고 써놓은이래 력대봉건사자들이 저마다 그것을 제나름으로 해석하는 과정에 외곡된 결과였다.

5) 《후한서》 권1 광무제기 6년조, 권52 최인렬전의 주석, 권76 왕경전

6) 《고조선력사개관》 사회과학출판사, 주체88(1999)년, 183~184페이지

제반 역사적사실은 《한4군》 특히 그 중추를 이루고있던 락랑군이 엄연히 료동지방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락랑군-평양설, 한4군-조선반도설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디딤돌로 하여 전개되는 온갖 주장은 도저히 성립될수 없다.